

KIEP

지역경제포커스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11월 10일

ISSN 1976-0507 Vol. 3 No. 50

글로벌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의
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

오 태 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(asroc101@kiep.go.kr, Tel: 3460-1159)

▣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으나, 프랑스는 주요 EU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
- 프랑스 경제는 2008년 2/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0.3%를 기록하면서 EU 주요국 중 독일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.

▣ 글로벌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한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.

- △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△ 프랑스 은행의 안정적 자산운용 △ 민간부문의 낮은 부채율 및 높은 저축률 △ GDP 대비 수출부문의 낮은 비중 등임.

▣ 향후 프랑스 경제는 경기침체기 경기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기 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경제편더멘털로의 전환 및 강화가 요구됨.

- 프랑스는 높은 사회보장비를 지출하고 있으나,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음. 또한 낮은 수출비중은 외부충격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도 경기회복 초기 대외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.

▣ 한국 은행들은 프랑스 은행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리스크 대비 및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- 프랑스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리스크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, 새로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개발·관리함. 또한 은행부문의 엄격한 대출 및 안정적 자산운용을 통해 금융호황기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대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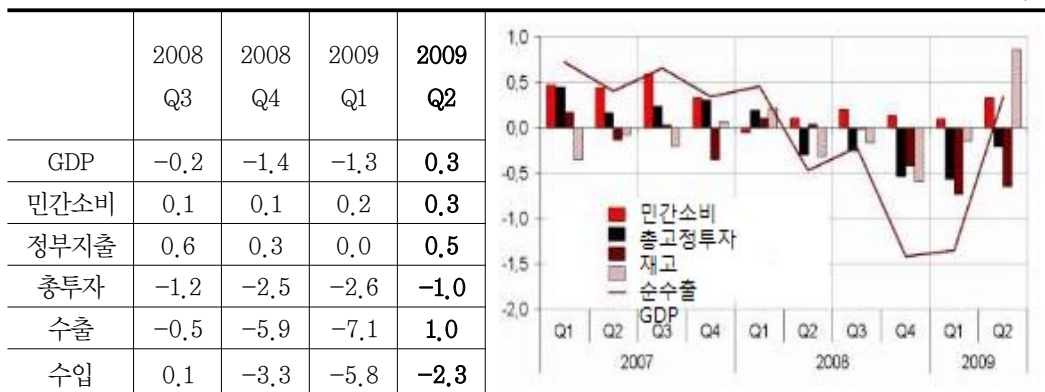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1. 글로벌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 현황

- 2008년 본격화된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프랑스 경제는 2008년 2/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. 그러나 2009년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0.3%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.
- 2008년 4/4분기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-1.4%로 1945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음.
- 2009년 2/4분기 프랑스의 경기회복은 주로 순수출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.

표 1. 프랑스 실질GDP 항목별 증가율 및 GDP 기여도

(단위: 전기대비, %)



자료: Insee(2009).

- 수출의 경우 2009년 2/4분기에 1.0%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-2.3%를 기록하면서 순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.9%를 기록함.
- 지난 10년간 연평균 2.5%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민간소비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, 2009년 1/4분기와 2/4분기에 각각 0.2%와 0.3%로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.
- 총투자의 경우 2/4분기 -1.0%로 1/4분기(-2.6%)보다 개선되었지만, 여전히 경기침체에 따른 총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.
- 기업투자는 2008년 2/4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, 금융위기로 인

한 신용경색이 본격화된 2008년 4/4분기(-2.6%)에 급격히 위축됨. 2009년 1/4분기와 2/4분기에도 각각 -1.9%와 -1.8%를 기록함.

- 높은 실업률과 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, 주택가격 하락(2009년 2/4분기 -2.7%로 4분기 연속 하락)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계투자 위축도 계속될 전망이다.

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으나, 프랑스는 EU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
- 수출대국인 독일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수요의 감소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8년 4/4분기와 2009년 1/4분기 각각 -2.4%와 -3.5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, 이후 대외수요의 회복에 따른 수출이 증가하면서 프랑스와 함께 2009년 2/4분기 0.3%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함.
- 한편 금융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영국은 금융위기 충격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.

표 2.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

(단위: 전기대비, %)

	2008. Q3	2008. Q4	2009. Q1	2009. Q2
EU	-0.4	-1.8	-2.4	-0.3
유로지역	-0.4	-1.8	-2.5	-0.1
독일	-0.3	-2.4	-3.5	0.3
프랑스	-0.2	-1.4	-1.3	0.3
영국	-0.7	-1.8	-2.4	-0.8
이탈리아	-0.8	-2.1	-2.7	-0.5
스페인	-0.3	-1.0	-1.9	n.a.

자료: Eurostat(2009).

2.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분석

가.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요인

-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높은 공공지출이 오히려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함.

- 프랑스는 EU 국가 중에서도 사회보장비 지출이 GDP의 30%에 이를 만큼 공공지출 부담이 큰 국가 중 하나임.
- 사회보장비 지출의 상당 부분은 실업급여, 교육비 보조, 연금 및 높은 의료서비스 지출에서 기인함.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기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 때문임.

그림 1. EU 주요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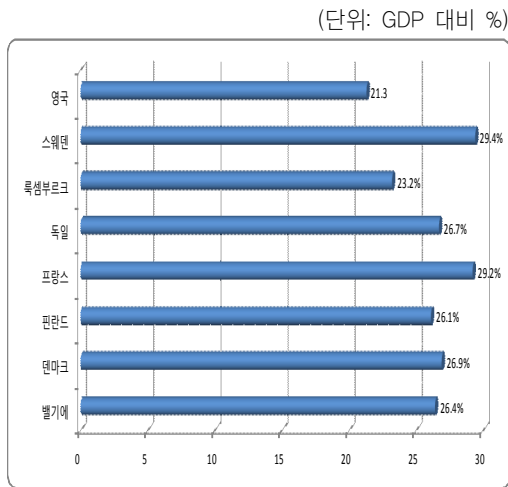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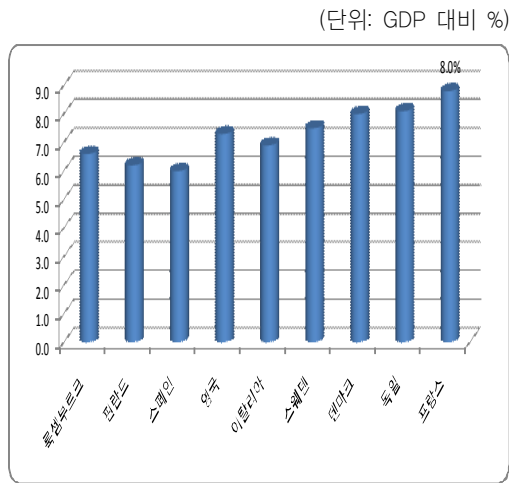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EU 주요국의 의료비 지출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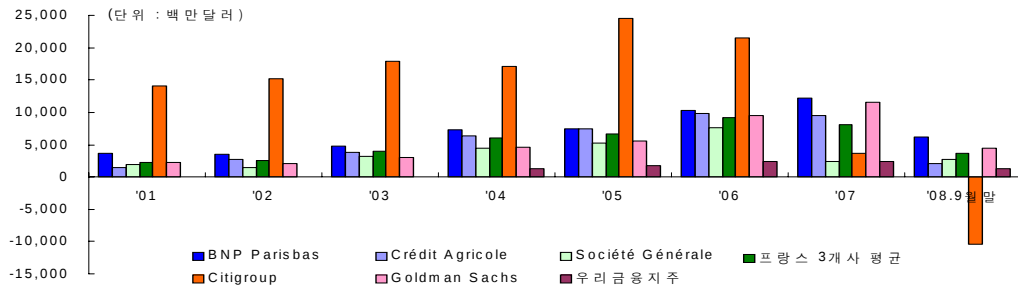


주: 사회보장비는 2005년 기준, 의료비 지출은 2006년 기준임.

자료: OECD Statistical Data Warehouse(2009).

- 프랑스 은행들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경기침체를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음.
- 금융 호황기 중 프랑스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은 미국계 은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안정성이 부각됨.
-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시티(104억 달러 손실)나 골드만 삭스(44.4억 달러 순이익)와 비교하여 BNP 파리바는 61.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함.
- 프랑스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리스크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, 신용리스크 · 시장리스크 · 평판리스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개발 · 관리함.

그림 3. 프랑스 주요 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



자료: 산은경제연구소(2009), 「프랑스 은행산업 및 주요 은행의 경영 성과 분석」.

- 프랑스는 낮은 가계부채로 인해 경기침체를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. 또한 EU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경기변동의 측면에서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함.
- 프랑스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73.3%로 영국(152.9%), 스페인(130.9%), 독일(93.3%)보다 현저히 낮으며, 유로지역 평균(93.1%)보다 낮은 수준임.
- 2008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저축률은 프랑스가 11.9%로 독일(11.4%), 유로지역 평균(9.9%)을 상회하며, 영국(2.0%)을 크게 상회함.
- 높은 저축률은 경기침체가 민간소비의 급속한 위축을 저지하는 역할을 함. 따라서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높은 저축률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임.

그림 4. EU 주요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(200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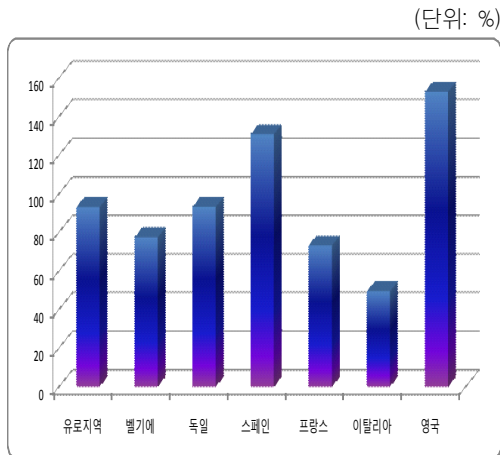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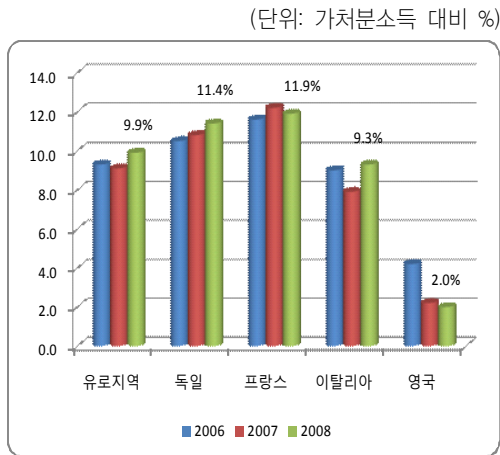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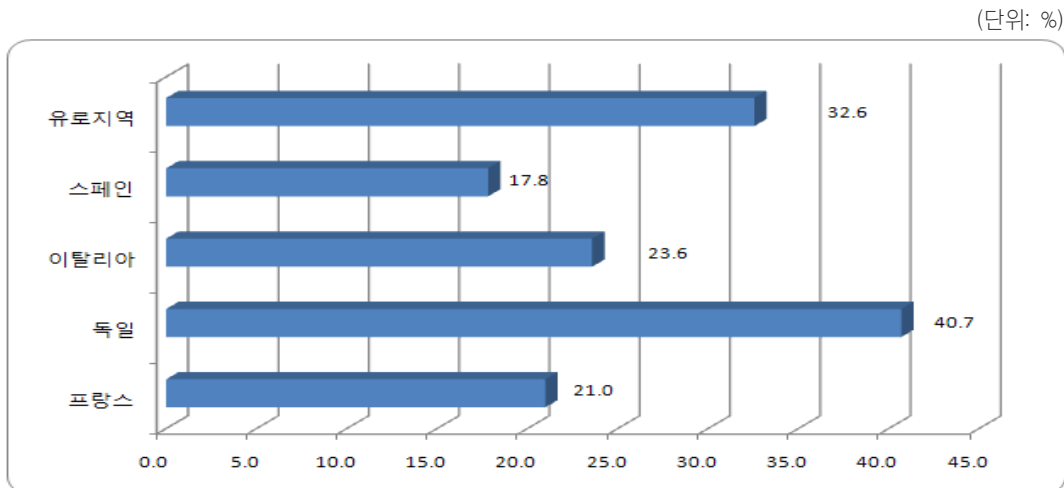
그림 5. 유로지역 및 주요국의 저축률



주: Eurostat(2009); OECD(2009), OECD Economic Outlook 85.

- 프랑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외수요 약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음.

그림 6. EU 주요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(2008년)



자료: Global Insight(2009).

- 프랑스의 2008년 수출비중은 GDP 대비 21.0%로, 독일(40.7%) 및 유로지역 평균(32.6%)보다 낮은 수준임.
- 주요 수출대국인 독일이 경기침체 심화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8년 4/4분기와 2009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-2.4%와 -3.5%를 기록한 것과 대비됨.

나. 경기회복 속 프랑스 경제의 불안요인

- 프랑스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와 높은 실업률은 향후 프랑스 경기회복의 주요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.
- 경기부양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한 높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향후 정부정책의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. 즉 경기회복을 결정짓는 중요 불안요인으로 판단됨.
- 2009년 10월 초 제출된 프랑스 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, 재정적자가

2010년에 GDP 대비 8.5%를 기록한 뒤,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5.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프랑스의 정부부채 또한 2010년 80%대를 초과한 뒤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3년에는 91.0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표 3. 2010년 예산 법안에서의 재정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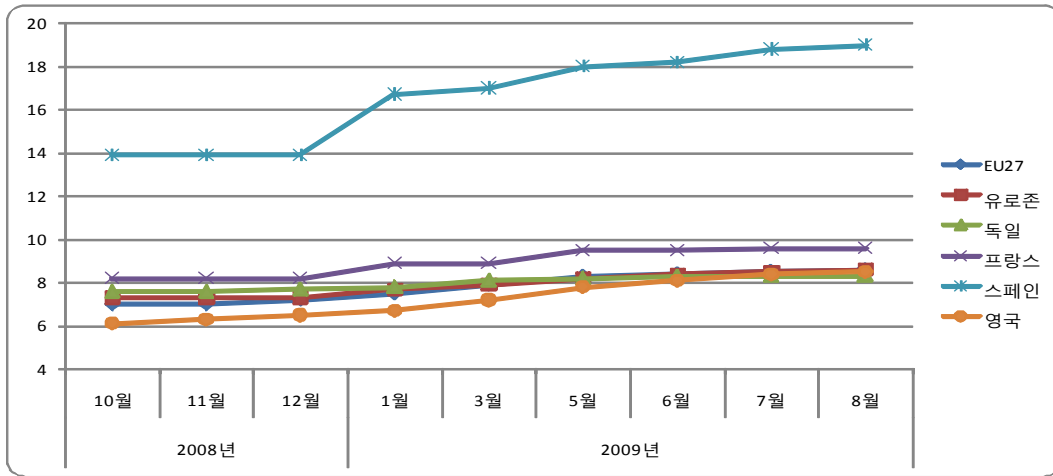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 %)

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재정적자	3.4	8.2	8.5	7.0	6.0	5.0
정부부채	67.4	77.1	84.0	88.0	90.1	91.0

자료: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étences Publique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'État(2009), *Projet de loi de Finances 2010*.

- 프랑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높은 원인으로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,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 등을 들 수 있음.
-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, 동시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. 즉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은 크나,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함. 따라서 경기침체기 경제를 지탱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혁이 요구되는 부분임.
- 그러나 급격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의료보험 관련 지출의 엄격한 관리, 자본소득세 증액과 같은 재정건전성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계획임.
- 프랑스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8.2%였으나,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2009년 8월에는 9.6%까지 치솟음.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반까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2009년 1/4분기에 18만 5,9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이후, 2/4분기에도 예상보다 높은 11만 3,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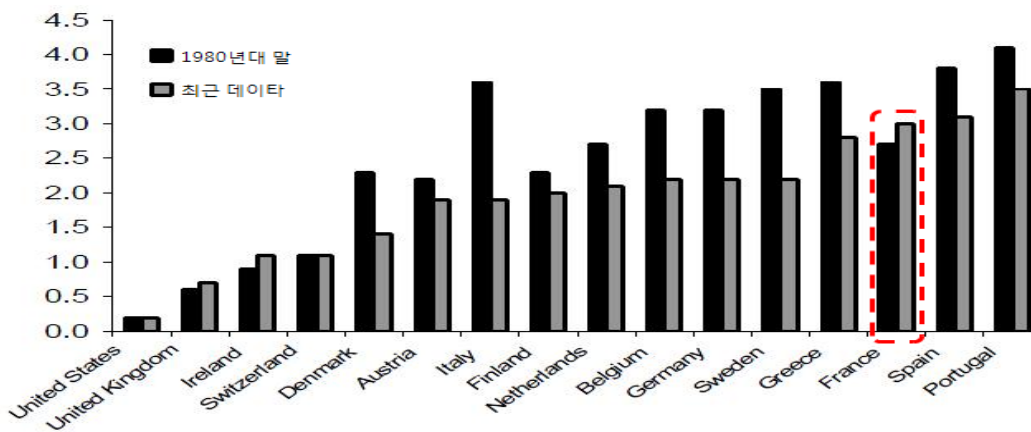
그림 7. EU 주요국의 월별 실업률



자료: Global Insight(2009).

- 프랑스의 실업률이 EU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것은 경직적인 고용구조 때문으로 분석됨. 높은 실업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실업급여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함.

그림 8. EU 및 주요국 노동시장 유연성



주: OECD의 고용보호법안지수(EPL indicators: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), EPL 지수는 고용 보호규제의 정도에 따라 0~6까지 분류됨. 즉 '0'이 고용보호규제의 정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고, '6'은 유연성이 가장 낮음.

자료: Morgan Stanley(2009), *Investment Perspectives*.

- EU 집행위는 2009년과 2010년 프랑스의 실업률이 각각 9.6%와 10.7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3. 프랑스 경제 전망 및 시사점

- 2009년 분기별 경기하락세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나, 본격적인 회복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- 프랑스는 2009년 -2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저점을 통과한 후, 2010년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경제성장률(-0.2%)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- 경기선행지표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인다는 측면은 있지만, 경제여건 자체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름.
- 2008년부터 급감했던 프랑스의 경기체감지수(ESI)가 최근 들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상승 기준이 되는 100을 하회하고 있음.

그림 9. 프랑스 경기체감지수 추이



자료: Insee(2009).

- 출구전략(Exit Strategy)과 관련하여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, 프랑스 정부는 신속한 재정감축 회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무게를 둬.
-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추진해온 감세정책이 계속 유지되면서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임.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△ 구조적 재정적자 △ 잠재성장률 증가를 위한 재정적자 △ 자동재정안정장치(fiscal stabiliser)로 인한 재정적자로 구분하였으며, 이 중 구조적 재정적자만이 관리대상임을 역설함.

■ 경기침체기 경기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경기호황기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경제펀더멘털로의 전환 및 강화가 요구됨.

-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한 프랑스 경제의 주요 강점이 경기회복 시에는 오히려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함.
-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되던 높은 공공지출이 경기침체기에는 완충작용을 했지만, 결국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악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.
- 또한 낮은 수출비중은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, 동시에 경기회복기 대외수요 증가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음.
- 한국의 경제구조도 GDP 대비 높은 수출비중으로 인해 경기침체기 대외수요 변화에 따른 경기변동성이 심함. 이에 수출경쟁력 유지와 동시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.

■ 한국의 은행들은 프랑스 은행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리스크 대비 및 수익창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- 프랑스의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리스크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, 신용리스크·시장리스크·평판리스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개발·관리함.
- 은행부문의 엄격한 대출 및 안정적 자산운용을 통해 프랑스 은행들은 금융호황기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.
- 프랑스는 소매금융·자산관리·보험 등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기에는 CIB(기업·투자은행)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, 금융위기 시에는 금융안정기에 확보한 이익을 통해 급격한 수익기반 악화를 막음. **KIEP**